

10

2019



양양소식

Vol. 293



강현면 쌍천 코스모스



플라이강원의 1호기 인수식(9.16)

양양소식

Vol. 293

CONTENTS

양양소식 · 293호

| 발행일 2019년 9월 26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4 설악산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우리의 입장

6 맞춤형 특화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속도

7 민속예술축제, 골프 레전드 매치 잇따라 개최...지역경제 보탬

8 한적한 공원에서 즐기는 파크골프장 조성

양양읍 '관문 얼굴' 14년 만에 바꾼다.

9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양양군 의회 성명서 발표



희망양양

- 12 기획취재 플라이 강원, 10월 날아오르다.
- 14 ISSUE & PEOPLE 양양 송이 선별원 박상희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탁장사 떡마을 이야기

오감양양

- 18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북면 명지리
- 20 맛있는 양양여행 한 그릇의 별미 양양 '뚜거리탕'
- 22 오피니언 오월 휴일의 장터 풍경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인생수업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양양군민의 입장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동안 양양군민이 하나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다.
- 2016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하였고, 본안에 대하여도 보완통보를 받았다.
-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를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다.
- 따라서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양양군민은 수십년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물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한다.
2. 왜곡된 잣대로 검토 · 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
3.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
4.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 를 전제로 한 회의운영으로 무효이다.
5.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결정, 사업의 부동의” 라는 앞뒤가 안맞는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을 즉각 철회 하고 반성하라.
6.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선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을 피눈물 나게 한 환경부는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7.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본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여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한다.

문의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 Tel. 033-670-2530



맞춤형 특화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속도

골프장 · 온천 · 아울렛 · 아쿠아리움 등...지역경제 전환점 기대

우리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각종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동해안 종합레저휴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맞춤형 특화관광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산악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꼽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앞두고 있어, 관광인프라 거점화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핑특화지구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고 있는 현남지역은 서핑 외에도 복합해양관광단지와 샤르망골프리조트 등 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역개발을 이끌고 있다.

(주)LF패션(구 LG패션) · (주)LF네트웍스가 현남면 지경리 5-1번지 일원 15만7,699㎡에 1,853억여원을 투입해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지경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경리 복합해양관광단지에는 관광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향토음식점, 수변공간,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도 · 원주지방환경청과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 등 관련 인 · 허가를 마무리하고, 2020년 3월부터는 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설해원은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에 골프장(대중제) 18홀과 함께 호텔 50실, 콘도미니엄185실, 테라스형 숙박137실, 단독형 숙박 99실 등 대규모 숙박단지를 만들고, 아울렛몰과 힐링가든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레저단지 개발사업으로 작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플라이강원 취항에 발맞춰 관광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산불피해지였던 현남면 임호정리 일원에 (주)리건이 추진하고 있는 양양샤르망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과거 산불피해지를 새로운 관광인프라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함께 관광휴양시설을 연계한 종합휴양레저 리조트로 구체화하고 있다.

현남면 샤르망골프리조트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약이 완료되면 본안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변지역과의 관광활성화 연계 전략도 수립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곳은 최근 해안가가 서핑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반면, 다소 침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추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현남면□현북면□손양면 등 해안가 지역의 주요 관광인프라가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플라이강원 취항에 발맞춰 본격화하면서 거점별 연계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의 거점인 낙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관광거점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낙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아쿠아리움 유치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아쿠아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아쿠아 테마파크는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군유지 1만7,267㎡에 민간자본 800여억원을 들여 지상 1층 · 지상 3층, 연면적 1만1,501㎡(수족관 5,000톤) 규모로 건립하는 동시에 뮤지엄과 플레이파크, 패밀리레스토랑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2021년 7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양양을 내곡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온천수가 발견돼 전문 업체에 온도와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28.6℃의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양질의 온천수로 판명되면서 양양온천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양양온천휴양타운은 고품질의 온천수를 활용한 찜질방과 부띠끄호텔, 어린이 수영장 등을 갖춰, 산악과 해안을 도심으로 잇는 관광인프라로서 양양읍을 명품휴양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산악과 해안관광 활성화에 나서면서 최근 46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을 추진하며 지역 전체를 균형적인 관광거점화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담당 Tel. 033-670-2725

민속예술축제, 골프 레전드 매치 잇따라 개최 ... 지역경제 보탬

도 단위 민속예술축제, 골프 레전드들의 설해원 레전드 매치 등



우리지역에서 지난 19일부터 4일 동안 도 단위 민속예술축제, 골프 레전드들의 설해원 레전드 매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먼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양군 종합운동장에서 ‘평화의 울림과 몸짓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되어 18개 시군 1,000여명의 민속단 등이 우리 지역을 찾았다.

참가 시군 민속단 규모를 감안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숙박 및 음식점소 현황 자료를 제공, 관내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청결교육 실시, 관내 관광지 무료입장 추진 등 시군 출연단 숙박 및 관광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했다.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설해원 주최, 대한골프협회 주관으로 설해원 레전드 매치가 열려 3,000명의 골프팬들을 필드로 끌어 모았다. 특히, 대회 이름 그대로 전설로 꼽히는 한국 골프의 스타 박세리, 박성현을 비롯해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줄리 잉스터(미국),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민지(호주), 렉시 톰슨(미국), 아리야 쭈타누간(태국)까지 8명이 출전해 골프팬들에게 경기의 묘미를 선사했다.

행사 기간 민속단 및 관계자, 골퍼와 가족 등 관광객을 포함해 총 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양양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및 숙박업소, 식당 등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Tel. 033-670-2102

한적한 공원에서 즐기는 파크골프장 조성

내년 상반기까지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우리군은 송암리 540번지 일원에 주민의 스포츠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에 골프(Golf)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일반 골프와는 달리 나무로 된 채로 나무 공을 쳐 잔디 위 홀에

넣는 스포츠로 세계 휘둘러도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장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작은 부지에서 어린이부터 노인, 3세대가족,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우리군은 사업비 7억 6,250여만원을 투입해 송이조각공원 내에 기존 파크골프장이 위치해있던 송암리 540번지 일원 25,000㎡에 파크골프장 18홀 규모 조성사업을 10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하게 됐다.

사업 부지가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변경)에 포함되어 있는 친수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 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을 고려해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보전하면서 하천기본(변경)계획에 부합하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관리해갈 방침이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 및 관광객들의 공원 이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 Tel. 033-670-2731

양양읍 '관문 얼굴' 14년 만에 바꾼다

연창삼거리 송이조형물 2020년까지 교체

우리군은 양양읍 관문인 연창삼거리에 설치된 송이조형물을 14년 만에 교체하기로 했다.

송이조형물은 양양송이의 우수성과 송이축제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송이캐릭터를 활용해 지난 2006년도에 양양읍 연창삼거리와 현남면 지경리 등 2개소에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했다.

현재의 조형물은 양양의 미래상을 반영하기 어렵고, 양양의 이미지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군은 양양군 특성을 반영하고, 짧은 시간에 양양을 각인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조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을 9월중 발주하여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며,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후 실



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에 교체·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리마인드 청춘페스티벌~!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인구1리 으뜸상 수상.
2. 치매예방! 조기치료! 가족헤아림! 양양군보건소 옆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세요~!
3. 걷기 좋은 날! 도란도란 걷기동아리 건강UP!
4. 2019 송이축제 이모저모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양양군의회 성명서 발표

설악산 오색 삭도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



군의회는 9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준 사업에 대해 이제 와서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이며, 명백히 양양군민을 농락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고제철 의장은 성명서에서 “산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양양군민은 결단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여 부동의 결정한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양군의회 의원 전원은 양양군 미래를 암흑으로 만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9월 19일 군청 소회의실에



서 개최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에 참석해 추진위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고제철 의장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우리 의회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8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참가 김택철, 김의성 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8월 28일부터 이틀간 영월군에서 개최된 제18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 참가했다. 강원도 내 선출직 의원 223명이 총출동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지역과 정파를 벗어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강원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서로 간에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택철 의원과 김의성 의원은 이번 대제전에서 강원도 시군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4회 강원의원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강원의원정봉사상은 도내 시군의회의 의원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택철, 김의성 의원은 의욕적이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민원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플라이 강원, 10월 날아오르다



지난 9월 플라이강원이 양양군 조산리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16일에는 플라이강원 1호기가 양양국제공항에 들어오면서 양양군민은 물론 강원도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2년 양양국제공항이 열리면서 양양은 세계로 나가는 강원도의 관문이자 남북 교류의 거점공항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듯이, 양양국제공항의 재도약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안에 국내선은 물론이고 국제선 취항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추진 중이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선전을 기대한다.

200여명의 새 식구를 맞이하다.

양양군 조산리 388번지에 지난 9월 플라이강원 본사가 이전, 운영되면서 양양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업이 입주하면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 주변 일대 상가는 물론이고 관내 상가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플라이강원 1호기(B737-800)가 들어왔고, 운항증명 등 절차를 거치면 10월에는 국내선 첫 취항을 하게 된다니, 드디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운항이 시작되는 셈이다. 아직까지 항공기 운항을 위한 운항증명(AOC Air Operation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한 준비 절차로 분주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관광과 항공운송 사업을 융합하는 항공사(TCC Tourism Convergence Carrier)로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11개 항공사 가운데 10번째 항공사로서 항공권은 물론 강원도 내 관광상품을 개발해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4년 뒤 2020년에는 제10호기 운용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 등으로 플라이강원은 안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양군과 군민의 지원과 응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을 설립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처음 면허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었고, 2017년에도 불확실한 수요 확보와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양양군민들은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항공사 설립을 반드시 관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올해 삼수 끝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그리고 3월 면허 발급 이후 플라이강원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옥을 양양군에 건립하고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양양군은 10월 항공운항증명 심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플라이강원의 조기 안정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라이강원이 목표대로 추진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의지도 모아지고 있다.

도내 관광 활성화 기대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실속파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또한 국제선에서 저가항공사(LCC)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저가항공사(LCC)의 국제선 점유율은 32.2%로, 여행 경험 횟수가 증가하면서 항공료에 많은 비용을 쓰기보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항공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 아웃바운드 현황 및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18세 이상 1000명의 응답자 중 66.2%가 저가 항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때 '저렴한 경비'를 먼저 고려한다는

응답도 49.1%를 차지했다. 저렴한 가격의 저가항공사(LCC)가 공급을 늘리고 노선을 다변화하자 해외여행의 새로운 수요층이 창출된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저가 항공권과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항공사(TCC)로서, 저가항공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관광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고,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담 없고 편리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 대형 여행사 42개 업체와 100만 중국 관광객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더불어 동남아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편리하게 방문하고 관광할 수 있는 전문여행사로서도 준비하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_ 양양 송이 선별원 박상희 씨

전국 최고 품질의 양양 송이,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독서의 계절, 수확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등 가을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양양사람들에게 가을은 ‘송이의 계절’이 아닐까?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는 무렵이면 송이 농가 주민들은 양양의 깊은 산 속에서 송이를 채취하느라 분주하다. 올해는 폭염과 태풍, 늦장마까지 이어져 기후에 예민한 송이의 작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월 16일, 양양속초산림조합 공판장에서는 올해 첫 양양 송이 공판이 시작되었다. 공판 첫날의 1등급 낙찰가는 82만8,800원(1kg 기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과연 ‘버섯의 황제’, ‘황금 송이’라고 불릴만하다. 양양 송이는 여전히 ‘명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최고 품질의 양양 송이를 엄선하기 위한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송이의 품격, 정확한 선별에서 비롯된다.



양양 송이 선별원 박상희 씨

한 달 정도의 공판 기간 동안 산림조합 공판장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송이 수매를 시작해 오후 4시에 입찰을 거치고 오후 4시 50분쯤 공판가를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상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송이 선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판단이 양양 송이의 상품 가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송이 선별원 박상희 씨(77세, 원일전리 거주)는 그렇게 어렵고도 막중한 일을 45년 째 이어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양 송이를 채취하고 판매한 경력을 바탕으로 1975년부터 양양 송이 공판장에서 선별작업을 해 온 박상희 씨는 송이의 생산지는 물론 보관 상태, 채취 시기까지 알아차릴 만큼 예리한 눈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

양양속초산림조합 공판장에서는 양양군 내에서만 채취된 송이만을 취급하는데, 혹여 다른 지역의 송이가 섞인다고 해도 박상희 씨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는 없다. 토양과 환경이 다른 지역별 송이의 특징을 모두 꿰고 있기 때문이다.

양양 송이는 모양이 좋고 살이 단단한 데다 향이 유독 강하다. 예전에는 다른 지역의 송이가 양양 송이로 둔갑하는 일이 많았다. 상품의 질이 떨어져도 양양 송이라고 하면 비싼 값에 팔렸다. 무질서한 유통구조로 인해 양양 송이의 명성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지자, 양양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6년부터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송이 선별원 박상희 씨의 세심한 검증까지 더해졌으니 양양 송이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탄탄하다.



정답(正答)은 없지만 정도(正度)는 있다.

박상희 씨의 송이 선별 작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 산에서 채취해 온 송이가 선별대에 올라오면 손에 들고 몇 번 쓱쓱 훑어본 후 분류 바구니에 척척 나눠 담는다. 그리고 선별 기준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급을 매긴다. 대충 살피는 것 같아 보어도 송이에 벌레 먹은 자리, 미미하게 썩은 부분까지도 정확히 포착한다.

송이는 갓 둘레가 자루보다 약간 굵고 은백이 선명한 것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갓이 퍼지지 않고 길이가 8cm 이상이 되어야 1등급 송이로 인정받는다. 온전히 선별원의 감각으로 송이의 등급이 결정되다 보니 생산자들 중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상희 씨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중간에서 싫은 소리를 듣는 일이 다반사이다.

송이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른 띠지가 부착되고, 그 띠지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다보니 책임감을 갖고 더 철저히 선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 바른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 양양 송이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역시 양양 송이야'라며 엄지를 치켜세울 수 있도록 박상희 씨는 원칙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박상희 씨에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 같느냐고 물었다. '할 수 있는 한 힘닿는 대로'라는 모범답안이 돌아왔다.



내년 가을에도 그는 이 자리에서 양양 송이의 품격과 가치를 지키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글·사진 : 편집부〉

탁장사(卓壯士) 떡 마을 이야기



1. 탁장사의 탄생

오색 굴아우 맞은편에는 장군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장수가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달리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장군바위라 부르고 있다. (현 장군바위 주유소 뒷산)

송천리는 광산 탁씨의 집성촌인데 탁씨의 22대조가 사망하여 묘를 쓸 때 지관이 초청하여 묘지를 정하기를 부탁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 자리는 “장군바위를 바라보는 이곳에 산소를 쓰면 후손 중에 장사가 태어날 것이오.”라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탁씨 후손들은 은근히 장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

고 고대하였다.

그런데 조선 순조 때 탁씨의 24세손인 탁세주와 전주이씨 부인 사이에 둘째로 태어난 아기가 기골이 장대하여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장차 장수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그 이름을 탁구삼(卓龜參)이라 지었다.

그 후 장수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은 일제는 우려하여 투구모양의 바위를 떨어뜨려 아래로 굴러 버렸고 쇠말뚫을 박아 장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2. 탁장사의 성장

龜參(구삼)은 낳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성장하면서 감히 누가 힘겨루기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음식을 다른 아이보다 2~3배의 양을 먹었고 특히 떡을 좋아하여 할머니(경주 김씨)가 자주 떡을 해주면 엄청 많은 떡을 먹어치웠다.

겨울철에 마을 사람들이 떡 추렴을 하면 2~3되의 찰떡을 먹어치웠다. 그래서 떡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어느덧 성장하여 힘이 장사여서 어떤 일도 남보다 3~4배로 일을 했다.

3. 탁장사의 힘자랑

통방아를 수렁에 처 박다.

탁장사가 양양에서 장을 보고 가던 중 어느 마을에 당도하니 마을 청년들이 모여 큰 나무를 베어 깎아 통방아(큰 나무를 1/2를 속을 파내어 물이 차면 내려가서 방아가 되는 것)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참을 먹으며 막걸리도 한잔씩 마시고 있었다.

먼 길을 가다가 탁장사도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체도 안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탁장사는 주막에 들러 식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밤에 그 장소에 가서 만들던 통방아(4~5명이 들어야 하는)를 들어 멀리 논 수렁에 처박아 놓았다.

다음날 아침 다시 모인 마을 사람들은 방아를 찾아다니다 수렁에 박혀있는 통방아를 찾아내고 낮에 지나던 탁장사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탁장사의 힘을 알아본 그 마을 사람들은 탁장사를 찾아와 음식을 대접하고 잘못을 사과하였다. 사과를 받은 탁장사는 수렁에 박혀있던 통방아를 꺼내 제자리에 놓고는 유유히 갈 길을 갔다.

강릉 권장사와 힘겨루기

조선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태조가 창건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타버린 후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270년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있었던 경복궁 중건에 착수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목재를 모아들였다. 당시 개자니골(현북면 어성전 2리 서남쪽, 일명 개잔리)과 가마소골(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사이 바다재에 아주 큰 황장목이 있었다. 이곳은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 바칠 벌목 부역에 나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제일 큰 한그루 나무가 경계부근에 서 있어서 서로 차지하려는 데서 내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를 베면서 쓰러뜨릴 때 경계 북쪽으로 쓰러지



면 양양이 차지하고 경계 남쪽으로 쓰러지면 강릉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무가 경계 중간에 쓰러지므로 주인을 가릴 수 없게 되자 또 다시 내기로 이 나무를 지고 가는 편이 갖기로 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통나무를 여럿이 들어 지게에 올려놓고 강릉의 장사와 양양의 장사를 뽑아내세웠다.

당시 강릉(현 퇴곡리)에 힘세기로 이름난 권장사가 뽑혔고 양양은 송천 탁장사가 나섰다. 먼저 강릉의 권장사가 지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자 다음 양양 서면 송천리에 사는 탁구삼의 차례가 되었다. 탁장사는 나무를 지고 일어나서 걸어내려 왔다.

주위의 숨을 죽이며 바라보던 양양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고 강릉 사람들은 놀라 허를 찔렀다. 마을에 돌아오자 소래(송천리) 사람들은 떡을 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부터 卓龜參(탁구삼)씨는 卓壯士(탁장사)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 후계자를 뽑는 놀이로 큰 잔치가 베풀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다.

매년 열리는 양양문화제 때도 큰 나무 토막을 지고 일어서서 멀리 가는 탁장사 뽑기 민속 경기가 열리고 있다.



4. 송천리 떡마을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기 위해 송천에서는 탁은기씨를 주축으로 온 마을이 떡 마을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신청하여 송천 떡 마을로 지정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2003년 떡집 건물을 신축하고 10여 가지의 민속 떡을 생산 판매하고 떡 체험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글 : 문화원 · 사진 : 양양군 SNS 안영국 기자〉

8군단 인사처장(육사 49기) 김경연 대령이 양양 장날의 풍광을 재미나게 엮어 주셨습니다.
사람냄새 나는 양양시장을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흐린 일요일 오후 온 종일 집에서 뭉게다 두손 잡고 나가시는 부모님 덕에 장날인 줄 알았다.

점심시간이 한 참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입구부터 걷다 서다를 반복했다. 시골에 왜 사람이 이리 많은지 이곳 사람들 다 오는 듯했다.

외곽으로 돌아 잠시 한적한 곳으로 다시 나가려했다. 늘상 지나다니던 골목 어귀에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자리 잡은 뚜레주르도 전과 달라보였다.

입구 앞에 어린 오빠, 이쁜 여동생도 보인다.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와서는 '너희들 여기서 꼼짝도 하지 말고 기다려'하며 또 누군가를 찾아 사람 속으로 사라진다.

아마도 남편이 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한 잔 하느라 전화도 안 받는 모양이다. 아이들에게 신신 당부하고 또 다시 있을 법한 곳을 찾으러 가는 듯 보인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맛있게 먹던 어린 여동생은 엄마가 보이지 않자 바로 일어서 어디를 가려한다. 암전한 오빠가 소매를 잡으며 '오빠 옆에 딱 붙어 있어, 길 잃어버리면 어쩌려고'하며 다시 앉힌다. 어리지만 여동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파장 때가 되어서인지 인적이 뜸한 곳에 꽃단장한 할머니 몇 분이 누군가를 기다린다. 같은 동네 분들일까? 집으로 같이 갈 친구를 기다리나? 태워다 줄 자식들을 기다리나? 할아버지들을 기다리나?

그중 한분은 멧쟁이 할아버지를 보고 흥조 띤 얼굴로 일어나며 부끄러운 미소로 맞는다. 노년의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이 아름다워 보인다.

저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사랑도 한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것이든 할 줄 알고 해결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이다.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는 알고 나서 알면 늦은 것이다. 어느 작가는 유작에서 존경하는 스승이 눈만 뜨고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오며 매일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작업 공구를 파는 좌판에서는 낡은 그릇에 구멍을 연신 뚫는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매장에서는 4만원인데 3만원에 팔아요'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애써 관심을 숨기려 하신다. 지나가는 내가 보기에 그 마음이 흰히 들여다보인다.

'가격이...'라는 말씀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서운 속도로 드릴 끝 나사 셋을 꺼내어 떨어지지 않는 기능이 있다고 흔들어 보인다.

'오늘 장사도 잘 되었으니 사시면 서비스로 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나고...'라는 말에 바로 지갑을 여신다.

헛갈린다. 상술인가? 진담인가? 둘 다일까?

이 곳 상인 같지 않은 옷차림,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품위가 있어 보이는 중년의 여성도 무엇인가를 팔려는지 그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키고 있는 건지? 얼핏 보아도 피부



색이나 화장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

서울로 시집 간 딸? 혹 시댁 온 며느리? 아직은 내가 젊고 건강한 모양이다. 선그라스에 눈을 숨기고 자판 위 물건은 안보고 엄한 것만 보며 지나갔다.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지만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 올 것 같은 산만한 배를 한 임신모도 생필품들을 팔고 있다.

산달이 다가오면 운동을 더 해 주어야 수월하게 출산이 되니 돈을 주면서까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물건을 팔아 돈도 벌고 운동도 하니 일석이조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좀 안쓰러워 보인다.

잠시 봄비는 곳을 떠나 찹쌀떡 하나 먹으려 뒷골목으로 접어들자 허리가 90도로 땅에 닿을 만큼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도 없이 힘겨운 잔걸음으로 바쁘게 스쳐 가신다. 살짝 마주친 무심한 눈빛 사이로 깊게 패인 주름이 보인다. 힘겨운 삶, 평탄치 않은 인생,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까지 느껴진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 저리 사시진 않을 것이다.

지금은 거리에서 보기 힘든 상□하의가 안 어울리는 양복을 입으시고 대낮부터 한 잔 걸친 중년의 시골 멋쟁이 아저씨도 기분이 흐뭇해 보인다. 얼굴이 붉은 것일까, 코만 붉은 것일까?

같은 남자로서 기분 좋아 보인다. 그런데 한 잔 하시고 어디를 저리 바빠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가는 것일까? 문든 동요한 곡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가고~
어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먹고 메엠멤~, 달래먹고 메엠멤~,
고추먹고 메엠멤~, 달래먹고 메엠멤~**

잔뜩 멋 부린 젊은 여성은 무얼 저리 두리번거리는지 짙은 화장, 진한 립스틱, 화려한 색상의 바탕에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고 있다. 마치 하늘거리는 옷을 자랑하듯이 누구라도 보아달라는 것처럼 걷는다. 중국 춘절을 소개한 지상파 방송에서 예전에 본 듯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패션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인지 그들이 저 여성의 것을 따라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상당히 닮았다.

시장길 한 구석에 이제야 햇빛이 건물에 막혀 그늘진 곳에 넓게 자판을 벌리고 채소 등을 떨어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 계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땅콩, 앵두, 상치 등을 조금씩 담은 그릇을 가리키며 손짓으로 사가라 하신다. 오래된 듯 보이지만 아직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차양모 사이 백발이 어설프게 어

울린다. 그 중 한 분은 열심히 천원짜리 뭉치를 침 발라 세고 계신다. 한 시간 전쯤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 할머니는 머리를 굽적이며 계속 그대로이다. 돈이 많아서일까? 세다가 잊어버려서일까? 하여간 얼굴에는 미소가 한 가득이다.

엄마 뒤를 졸졸 따라 가며 한 손에 무엇인가를 마시는 초등학교생,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 옆 좀 큰 아이는 무언가 불만 가득한 얼굴이다.

좀 더 컸다고 부모님 따라 장에 오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좋을 나이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성장하면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해서 사는 게 이치인가 보다.

그런데 오가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친구분께 인사하고 용돈 받는 큰 아나는 싱글벙글이다. 역시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상하지위를 떠나 뭐라도 받는 건 다들 좋아한다. 이런저런 사람, 농촌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 상추, 쑥갓, 깻잎, 오이 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설악산에서 채취되었을 거라 추측되는 열매, 나뭇잎, 줄기껍질, 뿌리, 버섯들과 오징어, 문어, 고등어, 가재미에 그 귀하다는 명태까지... 볼거리 천지이다.

그래도 장터가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뽕대기, 순대, 만두, 찹쌀도넛츠, 호떡, 별의별 튀김 등이 제일이다. 검은 봉지에 필요한 것 싸게 사서 들고 다니며, 장 구경에 더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최고다. 선그라스에 야구모자로 위장했으니 아는 이 없을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어릴 적 엄마 따라가던 그 시장의 나로 돌아가니 즐겁기 그지없다.

여기서 빠지면 안되는 어디선가 들리는 '위하여' 함성!

아마도 장날을 잡아 친구들 모임을 하는 모양이다. 목소리, 웃음소리에 정겨움, 삶의 기쁨이 묻어 들려온다.

이런 사람들을 구경하는 나 같은 사람, 명품으로 보이는 여성용 가방에 명품 선글라스를 한 채로 열심히 사진 촬영하는 사람 또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상인들...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 모르겠다.

문득 동물원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원숭이, 코끼리들도 그러했으려나 생각하니 실 웃음이 난다.

저 오월의 푸른 하늘 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평소에 온갖 죽는 상, 슬픈상, 아귀 다툼, 시기, 질투를 하다가 어느 날은 해해거리며 즐거워하고 행복에 겨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하는 우리를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 문득 궁금해진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봄 앵두, 가을 송이, 계절마다 풍요로워
부자마을 명성을 잇다
마을이장 임기 단 1년, 마을일은 청렴하게



지난 9월 16일부터 양양송이 공판이 시작되었다. 양양에서 생산되는 송이만을 선별해 등급별로 구분해 판매하는데 양양에서도 가장 향이 좋고 맛 좋기로 알려진 송이가 바로 명지리 송이라고 한다. 설악산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비롯해 산 좋은 양양에서도 명지리는 산이 깊고 물이 맑아서 송이 향이 좋고 육질이 단단해 으뜸으로 친다고 한다. 9월에 명지리 들녘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밤나무가 짹짹 벌어져 밤알을 떨어뜨리고, 밭에는 호박이며 고추가 그들먹한 것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봄 앵두, 가을 송이 명지리.

과실 중에서 가장 먼저 익는 과일이 앵두인데, 명지리 앵두가 그중 으뜸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인 일제강점기 때부터 명지리는 앵두가 많이 나고 맛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양양군내 과수원마다 앵두를 심었지만 그래도 명지리 앵두가 최고란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에 명지리 앵두의 명맥을 잇고 알리기 위해 앵두축제를 하고 있다.

봄에 양양 앵두가 익고, 가을이면 송이가 그 주인공을 잇는다. 양양송이는 지리적표시제로 가치를 알리고 있지만 유독 명지리 송이는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좋아서 자랑도 대단하다. 집집마다 송이 채취로 부자마을 명성을 얻었다니, 명지리 송이생산량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된다. 아쉽게도 올해는 송이가 지난해만큼은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져야 송이가 쑥쑥 올



라오기 때문에 9월말이 송이 채취의 적기로 예상하는데, 그 때를 기대한다고 했다.

산에서 땀이 알을 품은 형국이어서 부자마을 명성높아

가을 한철 송이 채취로도 거뜬히 한해 살림을 사는 부자마을인 명지리는 34가구의 80여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사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건너 건너 친척이라고 하니 오래전부터 집성촌으로 살아온 터이다. 몇몇 이주해 온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는 조용하고 단단한 마을이다.

‘명지리(明池里)’라는 이름이 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졌으니 물 맑은 마을이자,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서 마을 앞 광정천 들녘이 넓고 풍요로웠다고 한다.

7번 국도에서 어성전 방향으로 들어서서 중광정리, 상광정리를 지나 명지리로 들어가는 길은 광정천을 끼고 양옆으로 마을이 길게 늘어서고 논들이 줄지어 이어져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졌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어 논이 30% 이상 유실되어 논농사는 줄었지만 산 좋고 물 맑은 명지리에 산채며 장뇌삼, 송이 등은 여전히 명맥을 이으며 부농을 일구고 있다.



가족처럼 그러나 투명하게 발전하는 명지리.

올해 마을 일을 맡은 김현우 이장은 중학교 때 마을을 떠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 전에 다시 귀향한 명지리 토박이인데, 그동안 마을이 변화되고 발전해 온 과정은 잘 모른다고 한다. 그래도 형님들이 이장을 맡아달라고 하자 선뜻 맡아서 단 일 년 동안만 이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 마을이장의 임기가 2년인데 비해 명지리는 마을 조례에 이장 임기는 1년이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

“마을 일을 투명하게 하려고 이장일도 1년만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요. 저도 농사짓고 바쁘니까 마을 일을 맡기 부담되었지만, 일단은 50대로 젊은 축에 드는데다, 마을을 위해 봉사도 하고 그동안 형님들이 해오신 대로 하면 되니까 맡게 되었죠. 모르면 형님들한테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웃음소리도 유쾌한 김현우 이장은 농사짓느라 바쁘고 마을 일을 맡아 할 일이 너무도 많지만 다들 친척뻘인 이웃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인터뷰 도중에

4번이나 마을 형님과 통화해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니 틀린 말은 아닌가 보았다.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명지리의 들녘과 이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명지리의 오늘을 보여주는 듯했다.

〈글·사진 : 편집부〉



추어탕과 전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을 가을 탕(湯) 한 그릇의 별미 양양 ‘뚜거리탕’



양양 사람들은 잔치까지 베풀어가며 그토록 놀기를 좋아하고 천렵하기를 아주 즐기는 사람들 이라고 260년 전의 문헌 ‘여지도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독 잔치를 베풀며 흥겹게 놀 때,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천렵을 즐겼다고 하니, 이맘때라면 얼추 짐치는 음식이 있으니 당시, 남대천에 개락이였을 ‘뚜거리’로 끓인 ‘뚜거리탕’이였을 것이다. ‘뚜거리탕’은 이보다 200년이나 앞서, 400여 년 전부터 이미 먹어 오고 있는 음식이였으니 말이다.

바다에서는 옹고지, 하천에서는 뚜거리

본래 건더기가 많고 적음을 떠나 예부터 국물음식(湯)의 속성이라는 게, 둘러 앉아 국물 한 숟가락씩 떠먹어 가며 초면에도 ‘우리’가 되어주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로 더욱 화합하게 하는 ‘결속’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음식이다. ‘뚜거리탕’ 역시 이 같은 의미에 비춰 볼 때, 양양 사람들 간에 돈독함을 더욱 다짐케 해주던 오래 된 지역의 대표 국물음식이다. 당시, 남대천에 솔단지를 걸어두고 ‘송장치기’로 뚜거리 천렵을 즐겼을 그날의 양양 사람들도 오가는 사람들까지 불러 바글바글 끓인 ‘뚜거리탕’ 한 대접씩 나눠 먹으며 ‘우리’가 되어 즐겼을 것이다. 이처럼 양양의 ‘뚜거리탕’은 단순히 음식의 의미를 떠나, 지난 과거에는 양양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을 심어 주었던 ‘결속의 음식’이었다. 대동여지도에 남강(南江)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

큼 본래의 남대천은 지금과는 다르게 큰 강 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강물이 흐르던 남대천에는 뚜거리가 살고 있다. 민물에서만 살 것 같은 뚜거리는 바닷가 바위틈에서도 볼 수 있다. 생김새도 다를 바 없고, 크기도 다를 바 없는데, 예전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뚜거리를 ‘옹고지’라고 불렀다. 양손으로 가만히 몰아 가두어 잡거나, 고무신으로 잡아 유리병에 넣어 관상용으로 며칠 간 집에 두기도 했던 바다 뚜거리 ‘옹고지’의 추억도 양양에 있다. 요즘에 먹어 보약 같은 음식이면 어떨까 싶은 ‘뚜거리탕’인데 추어탕과 전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구수하게 느껴지는 진한 국물의 풍미가 무엇보다 좋다.





‘송장’ 끌며 두거리를 잡던 전통 어로문화

더욱이 양양 사람들의 변하지 않은 식성으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인생 푸드’처럼 여전히 즐겨 먹는 고추장이나 막장을 섞어 푼 장국에 끓여 놓았으니, 이보다 가을 입맛에 꼭 맞아 떨어질 음식이 어디 있을까 싶은 양양의 아주 오래 된 ‘국물음식’이다.

두거리탕을 먹는 별식의 방법으로는 보통 체에 곱게 갈아 끓여 내주는데, 별나게도 ‘두거리탕’을 좋아 하는 이들은 두거리를 통째로 넣어 달라고 별도로 주문하여 뼈째로 즐겨 먹기도 한다.

추어탕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장국 물에 부추나 수제비를 넣고 한소끔 끓여, 장국물이 푹푹 떨어 질 정도로 걸쭉한 국물과 구수한 냄새가 진하게 입맛부터 재촉하는데, 국물 맛이 시원하면서 담백하다.

사실 ‘두거리’라는 민물고기도 이제는 본 듯, 안 보듯 기억도

없을 만큼 희미하고, 별반 아닐 것 같은 국물음식 뿐 일 수도 있겠지만, 탕 한 그릇에는 음식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라진 옛 전통어로법도 있었다. 어른 키보다 조금 큰 길이의 버드나무를 잎사귀를 뜯어 내지 않고 베어 칠팜쿨이나 새끼줄로 얼기얼기하게 엮어서 ‘송장’이라고 하는 나뭇단을 만든다.

그리고 양 끝에 칠팜쿨이나 새끼줄로 줄을 묶고 강바닥을 들쭉시키고 훑고 다니면서, 돌 밑에 숨어 사는 두거리를 놀라게 하면서 족대(반도)를 대고 두거리를 잡거나 송장에 얼켜 잡힌 두거리를 잡던 전통어로법 ‘송장치기’이다.

260여 년 전, 남대천에서 천렵을 즐기며 그 때의 양양 사람들이 끓여 먹었을 두거리탕 한 그릇의 풍미가 그리운 가을 날, 남대천에도 가을이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이 책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삶과 인생에 대해 정의하고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조언을 모은 잠언록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케슬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수백 명의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삶을 마치면서 건넨 소중한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자들이 평생을 연구한 죽음에 대한 연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핵심은 ‘인생은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 좌절, 기쁨, 행복 등을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들이 가져온 메시지를 읽어 배움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삶이 기회이자, 아름다움이며, 놀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릴 것을 권합니다. 기력이 다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기의 머리

인생 수업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지음 / 이레 / 2006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지음, 더숲, 2019
- 연필로 쓰기
감훈 지음, 연금술사, 2018
-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지음, 북하우스, 2014



를 만져 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 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험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언제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별 아래에 살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나요? 삶을 진정으로 만지고 맛보고 있나요?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느끼나요?』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숨

테드 창 지음/ 엘리 / 2019

이 책은 ‘숨’을 비롯해 총 9편의 중,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소설집입니다. 수록 작품에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우리가 해야 할 일’,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거대한 침묵’과 최초 공개되는 ‘옴팔로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가는지, 인류문명의 발달, 인류의 미래 등에 대해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닷속 케이크

안드레아 초루미 지음 / 대교꿈꾸는달팽이 / 2019

지구 표면의 2/3를 차지하는 곳이며, 지구 산소 가운데 절반이 만들어지는 곳인 바다에는 수많은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어, 해양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그림책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닷속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내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오염 및 환경문제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민약국	1명	의약품관리 및 보조원	09:00~19:00 (시간협의)	월180만원
초원환경산업(주)	1명	경리사무원	08:00~17:00 (주5일)	월190만원
(주)동양이엠이스 양양솔비치	1명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05:00~14:00 10:00~19:00 (2교대)	월190만원이상 (협의)
(주)월드와이드 서비스코리아	1명	영양사	08:30~17:30 (주5일)	월210만원
	1명	기계 시설직	격일근무	월217만원
오션벨리리조트	2명	룸메이드	09:00~17:00 (주6일)	월175만원
삼정수산	3명	홍게가공 생산직	08:00~17:00 (주5일)	시급8,350원
코레일관광개발(주) 낙산연수원	2명	카미반 청소원	09:00~18:00 (주5일)	시급8,800원
(주)매홍엘앤에프	1명	누룽지제조 설비기사	3교대	월250만원
	3명	누룽지 생산직	3교대	월200만원
	6명	식품가공 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174만원이상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9월 22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9 양양연어축제

황금연어의 행운을 잡아라

**황금연어를 잡는 참가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상금 지급**

참가신청 | 인터넷 사전예약 <http://salmon.yangyang.go.kr>
선착순 3,000명 인터넷 사전접수 진행

신청기간 | 2019년 9월 2일 ~ 10월 20일

상금지급 | 1등 1천만원 / 2등 2백만원 / 3등 1백만원
4등 50만원 / 5등 30만원
연어를 잡지 못한 참가자에게 1만5천원 상품권 지급

2019. 10월 27일(일)
13:00~15:00
양양 남대천둔치

주 관 | 양양군축재위원회
주 회 |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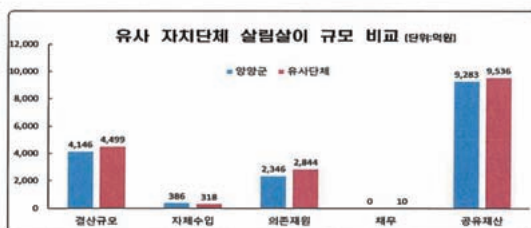
양양군

2019년 양양군 재정공시(결산)

2019. 8.

양 양 군

- ◆ 우리 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세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7만원입니다.
 - 의존세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46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3억원입니다.
-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 입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건물 등 2,519건(2,464억원)을 취득하고, 1,773건(1,14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28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 우리 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499억원) 보다 35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18억원)보다 68억원이 많으며, 의존세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843억원)보다 497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억원)보다 10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6천원)보다 36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535억원)과 비교하여 252억원이 적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제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전체 살림살이 규모와 의존세원, 공유재산은 낮은 반면, 지방채 등 자체수입은 높은 편입니다. 이에 자체수입을 더욱 증대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살림규모를 키우며,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y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이기선 (033-670-2110)

제7회 양양수채화 동호회 회원전

양양수채화 동호회에서는 제7회 동호회원 작품 전시회를 10.15일부터 10.19까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일부는 관내 다문화 가정 10가구를 선정해 기증함으로써 외국인 주부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전시기간 : 2019.10.15(화) ~ 10.19(토)
- 개막식 : 2019.10.15, 오후 2시
- 전시장소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
- 주최 : 양양수채화동호회
- 후원 : 강원도, 양양군, 강원문화재단, 문화원

혈관백세 이동 건강교실 운영

- 기간 : 2019. 10. 11. ~ 10. 15.
- 대상 : 지역주민

일시	읍면	장소	주제
10. 11.(금) 10:30 ~ 11:30	현남면	현남면 복지회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10. 14.(월) 10:30 ~ 11:30	강현면	강현면사무소	고혈압 식이관리
10. 14.(월) 13:30 ~ 14:30	현북면	현북면사무소	"
10. 15.(화) 10:30 ~ 11:30	서면	서면사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10. 15.(화) 13:30 ~ 14:30	손양면	손양면사무소	"

- 강사 : 외부강사 2인(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내용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고혈압 식이관리 강의,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 스트레스 지수 측정,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
- 주관 및 문의 :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670-2543)

2019년 만경대 탐방예약제 운영

- 운영일정 : 2019. 9. 10.(화) ~ 11. 14.(목) / 66일간
- 접수처 운영시간 : 9월~10월 08:00~15:00, 11월 08:00~14:00
- 운영구간 : 약수터탐방지원센터(접수처)~주전골~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만경대~약수터탐방지원센터(5.2km, 약 2시간 30분소요)
- 인터넷 예약
 - 국립공원통합예약시스템 예약(<http://reservation.knps.or.kr>)
- ※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 임시주차장 폐쇄
- ※ 비예약자는 약수터탐방지원센터~주전골~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구간만 방문 가능

2019년 하반기 군민정보화교육

월별	기 간	접수기간	교 육 내 용
10월	9. 30. ~ 10. 25. (월,수,금)	9. 23. ~ 9. 27.	(주간) 스마트폰활용(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앱 활용) 한글(워드 작성)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촬영 및 편집 ITQ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11월	11. 4. ~ 11. 29. (월,수,금)	10. 27. ~ 11. 1.	(주간) SNS의 이해(블로그) 멀티미디어 입문(사진·동영상 편집)
			(야간) 스마트폰 활용 (실생활 앱 활용, 이미지·동영상 편집) ITQ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12월	12. 2. ~ 12. 27. (월,수,금)	11. 25. ~ 11. 29.	(주간) SNS의 활용(인스타그램) 파워포인트 입문
			(야간) 스마트폰 활용, UCC만들기 ITQ한글 (강의 및 실습 병행)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전 화 : 033-670-2116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정리기간 : 2019. 10. 01. ~ 10. 31.(1개월)
- 정리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신고기관 : 군청 건설교통과(033-670-2717), 읍면사무소




SAVE OUR SEAS

YANG YANG

SURFING

2019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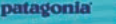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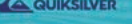
2019. 10. 11-13

2019 양양서핑페스티벌

장소 | 학도해변 및 동산합해면 일원

주최 | 강원도, 양양군

후원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서핑협회, 울산시서핑협회, 서울시서핑협회, 포항시서핑협회, 서귀포시서핑협회, 호남서핑협회, 해운대구서핑협회

협찬 |       

포털에서 **마이홈** 검색하고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가족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가구 203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월/년)	791,084	1,278,872	1,654,414	2,028,956	2,405,498	2,781,039

※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이홈(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지원안내-자가진단” 항목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서 작성 후 소득조사에 참여하는 등 가구원 수를 소정방법에 따라 100% 반영한다. (단, 소득조사에 불응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함)

신청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동주택 관리인(동리대표)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털(myhome.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① 소득정보공개서 제출(연간 신청서 신청자의 소득을 지원)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증빙자료 ④ 임대차 계약금(보증금) 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증빙자료 ⑤ 임대차 계약금(보증금) 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증빙자료

지원내용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본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차액 지급

가구원수(명)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33,000	201,000	183,000	147,000
2인	267,000	235,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2,000	242,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 실제 임대료가 지원액 기준임대료에 비해 초과하는 가구는 초과금액에 대한 차액 지급 제외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비율에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보수비율에 따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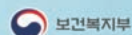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지정금액(주거)	378만원(가)	302만원(가)	202만원(가)	1,028만원(가)

지급일

1월 1일~1월 31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2월 1일~2월 31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서 접수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다음날은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LH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신바람난다,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1355)

※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어르신 일자리(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이동통신 요금 감면서비스(월 최대 1.1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NPS 국민연금공단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방법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빨리 치료하고!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위험 활동 1~3주 후 발생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5명 중 1명 사망
 (2013~2017년, SFTS 기준)
 의식 즉시 의료기관 방문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19. **10. 24** (목)
- **10. 27** (일)

양양 남대천 둔치

사전인터넷접수 | 2019년 9월 2일 ~ 10월 20일

축제문의 | 양양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670-2723, 2724

주관 | 양양군축제위원회 주최 | 양양군

참가신청 | <http://salmon.yangyang.go.kr>

경품이벤트 **회귀연어의
행운을 잡아라**

The 23rd
Yangyang Salmon Festival

양양 연어 축제 2019

2019 강원도 우수축제

양양군 